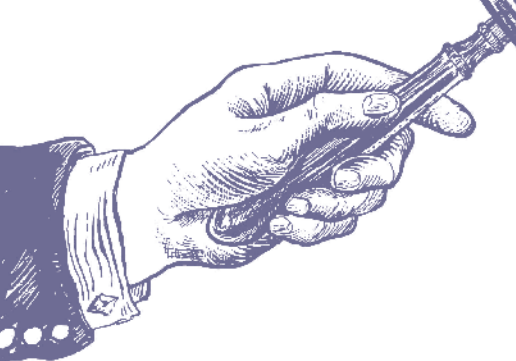


조선 후기의 두 노선과 대한민국

글. 김희동 KT스카이라이프 과장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노선 또한 마찬가지. 필자 본인뿐만이 아닌 주변의 이웃들 또한 집이 서울의 서쪽에 있기에 도심으로 가기 위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5호선 열차를 선택한다. 하지만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드물다. 혹자는 첫 번째 환승역인 김포공항에서, 아니면 두 번째 영등포구청에서 다른 노선을 갈아탄다. 제각각 목적(도착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노선을 사상이나 이념적으로 확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정치 노선! 제목에 등장한 두 정치 노선은 조선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서인(노론)과 한때 카운터파트였던 남인(청남)을 뜻한다. 이 두 노선 또한 초기에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구와 사림이 태동하기 시작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

고려 말 권문세족의 폭정과 약탈은 가림주구나 가정맹어호 그 자체였으며, 가뜰이나 이민족과 왜군의 침입이 잦았으니 민초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만 갔다. 이에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유교 사상으로 국가 기틀을 마련하려는 노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정몽주와 정도전이 있었다. 사실 이 둘은 조선의 성리학을 완성한 대사성 이색의 문하생으로 정몽주가 먼저 맹자를 읽고 어린 정도전에게 이 책을 건네주며 같은 꿈을 실현할 세력을 키우기 위

비운의 혁명가 삼봉 정도전(위)과 포은 정몽주(아래)



해 훗날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와 한배를 탔던 사이였다. 그렇게 그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서 마침내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우왕과 창왕까지 폐위시킨 뒤 공양왕을 옹립하며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점차 이 둘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서로 각기 다른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정몽주는 공양왕을 중심으로 더 이상의 반대 세력 숙청 대신 사회 안정을 꾀하려 하였는데 반면, 정도전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결국, 단심가로 유명한 고려 충신 정몽주와 끝까지 갈 수 없다고 결론지은 이방원(정도전과 같은 혁명 세력)은 자객을 보내게 되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조선이 건국된다. 이처럼 정도전, 하륜, 권근과 같은 급진세력의 혁명파들을 주축으로 조선이 탄생하였으며 이들이 바로 곧이어 등장할 훈구파의 전신이 된다. 그에 반해 이색, 길재를 비롯해 정몽주를 따르던 온건 성향의 성리학 학자들을 가리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관에 몸을 담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 초야에 묻혀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라 하여 사림이라 칭했다. 이렇듯 고려 말 온건파와 강경파인 이 둘은 인과 덕의 왕도정치를 이념으로 하는 맹자를 같이 읽고도 그 해석은 온전히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정도전이 설계했던 왕권과 신권이 조화된 이상적인 꿈은 이방원이 이룩하려 했던 왕권 중심의 현실에 좌초되고 만다. 다시 말해 정도전은 이방원과 혁명이라는 같은 노선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이상과 현실의 대립 속에서 공교롭게도 정몽주와 같은 최후(둘 다 이방원에 의해 살해됨)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듯 건국 초기의 조선은 강력한 왕권 국가였다. 태종 실록에서 확인하듯, 외교적으로는 지성으로 중국을 사대할지 언정 군사적으로는 만약을 대비하여 성루를 튼튼히 하며 군량을 비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절대 권력의 정치형태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다. 500년이 넘는 조선왕조에서 배출한 27명의 왕 중 적통이라 할 수 있는 장자계승자는 7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왕위찬탈을 둘러싼 세력 싸움에서 주변 신하들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뿌리 깊은 유교 사상 체제에서는 장자 적통의 승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었으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대의명분이 필요했고 여기엔 때로는 사실 여부보다는 세력 확장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최초의 반정이라 일컬어지는 세조 찬위는 왕숙인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7번째 왕이 되는 사건이었다. 단종은 문종의 외아들이었고, 문종은 세종의 장자였으니 이 완벽한 적통을 몰아내기 위해서 세조는 한

계유정난의 세조 수양대군(위)과 좌의정 김종서(아래)



명회, 신숙주, 권람 등의 손을 빌리게 된다. 바로 이 피의 숙청이 계유정난이며 살생부를 작성하여 단종을 옹위하고 있는 좌의정 김종서와 집현전 학자는 물론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안평대군 또한 모반으로 엮여 사사하고 만다.

결국 모반이란 대의명분은 허구였으며 이 소설을 각색하고 실행에 옮긴 신하들을 세조 입장에서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개국공신을 오랜 시간 동안 공을 세운 신하라 하여 훈구파라 불렀고 이들은 핵심 요직을 장악하면서 중앙집권 정치 세력으로 떠오

르게 된다. 하지만 패튼 경이 말했듯,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더구나 이들의 찬탈 명분이 유교 사상과는 꽤 괴리가 있었기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간 선비들의 후손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 발전과 후학을 양성하며 훈구와 대립하였다. 이들이 바로 사림파이다. 이들은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왕권복위를 목적으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중용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하였다.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훈구는 사림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가하게 되고(‘사림’이 당한 ‘화’=‘사화’) 연산군부터 명종까지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총 4차례나 사림 탄압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오랜 질곡의 인내 끝에 선조에 들어서 마침내 정권을 잡은 사림은 성리학을 근간으로 정치를 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누어진 지 오래되면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나누어진다고 했듯이 선조 초기에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고, 동인은 선조 말에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되고 만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개국의 주축 세력(훈구)들이 강경한 노선을 택한 데 반해 사람들은 온건한 태도를 취하며 이에 동참하지 않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택한 온건한 노선을 5호선 라인이라 한다면 열차에 같이 승차하자마자 첫 번째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 훈구파에 대한 처분과 중요 관직인 이조전랑직을 두고 온건파는 계속 같은 노선을 타고 가자는 부류였고, 강경파는 이들과 계속 같이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노선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때 온건파 당수인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다 하여 서인이라 칭해졌고, 반대로 강경파 수장인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다하여 동인이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프랑스대혁명 후 구성된 의회인 국민공회에서 급진적 변화를 꾀하는 자코뱅파가 왼쪽에 자리하여 좌파라 칭해졌고,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지롱드파가 오른쪽에 위치하여 우파라 불린 이유와 흡사하다. 이 두 정파 또한 초기에는 자코뱅 클럽이라고 하는 다양한 사상의 사람들이 모인 정치클럽에 속해있었으나 온건성향의 지롱드파가 노선을 달리하며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이렇듯 동서좌우의 개념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급진, 점진, 온건, 강경이라는 정치 노선을 구분 짓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단지 지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후 서인 정철의 죄를 묻는 과정에서도 동인은 사형을 시키자는 과격파(북인)와 귀양을 보내자는 온건파(남인)로 나뉘



온건파 심의겸의 집이 위치한 서쪽 정릉방과 강경파 김효원의 집이 위치한 동쪽 간천동

었다. 다시 남인은 2차 예송논쟁에서 서인에게 승리하고 1차 예송논쟁에서 진 빚을 앙갚음하기 위해 의견이 대립하였는데 당시 서인 영수의 처벌을 두고 사형을 주장한 강경파(청남)와 온건파(탁남)로 또다시 분열하게 된다. 6년이 지나 경신환국으로 남인을 몰아내고 집권한 서인은 남인의 처벌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취한 노장층(노론)과 온건한 입장을 취한 소장층(소론)으로 분당한다. 여기서 희대의 라이벌인 서인(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과 남인(청남)의 영수 백호 윤휴가 바로 두 노선의 대표인 것이다. 이 둘은 같은 사람과들로 병자호란 직후에는 서로 만나 열띤 토론을 벌이며 서로 학문을 칭찬할 정도로 돈독했었다. 그러나 예송논쟁을 벌이면서 둘 사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예송논쟁은 아들과 며느리의 상을 두고 상복을 입는 기간에서 서인과 남인이 부딪힌 사건이다. 사안은 단순해 보이나 실상은 매우 중요했다. 실각은 곧 죽음을 뜻하기에 투키디데스 함정과도 같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패권자와 상대를 견제하여 다시 집권하려는 도전자 간의 치열한 전쟁이었다. 송시열은 주자의 성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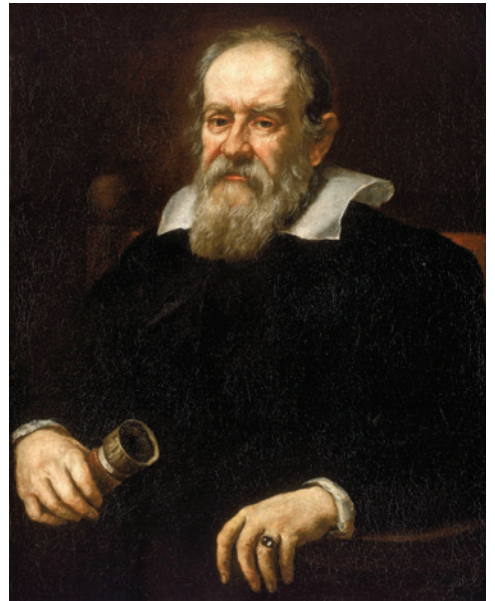
희대의 라이벌 남인(청남)의 영수 백호 윤휴(좌)와 서인(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우)

을 절대적으로 맹신했지만 윤희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상대주의를 인정하며 양명학 등을 용인하였다. 송시열은 주자의 성리학을 재해석하여 주석을 고친 윤희를 맹비난하며 사문난적이라 힐난하였다. 또 북벌을 두고도 심하게 대립하였는데 북벌에는 소극적이며 오히려 신권을 강화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송시열과 호패법을 폐지하고 동일한 지패법 시행으로 신분제를 완화하고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 양반 상민 구분 없이 균일하게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주장한 윤희는 구조적으로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결국 공교롭게도 이 둘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먼저 송시열이 윤희에게 역모와 동급으로 몰아 사약을 내리게 하고 기사환국으로 정권이 바뀌자 송시열 역시 윤희를 따랐던 남인의 복수로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이후 노론의 일당 전체 화가 구한말까지 이어지게 되고 당수 이완용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기고 1926년 사망하던 해까지 윤희는 철저하게 이단시 되어 그 이듬해에 비로소 그의 첫 문집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 여기서 강하게 의문이 드는 점은 과연 무엇 때문에 노론은 이토록 윤희의 사상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하는 점이다. 철학이 강요되는 순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역사적 사실은 수없이 있었다. 전체주의는 특정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 등을 무시하고 유일의 철학만을 강요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일 윤희의 업적이 사실이라면 그는 개혁운동가이자 기득 정권을 견제하는 자유로운 사상가임이 틀림없다. 반대로 송시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근간이 되는 성리학의 절대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감추고 은폐되길 바랐을 것이다.

비단 이런 사건이 동양문화에서만 있을 리가 만무하다.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지동설을 주장하고 사망하자 가톨릭교회는 이를 금서로 지정하여 금기시해왔고 갈릴레이가 그의 논문을 다시 증명하려고 하자 이단 재판을 열어 끝내 포기 각서를 받아낸다. 하지만 끝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사상을 위해 순교한 이도 있었다. 조르다노 브루노, 그는 지구가 유한한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주는 무한하며 지동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당시 신앙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칼뱅주의를 무시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관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이단으로 몰려 화형이란 극형에 처하게 된다.

신념을 포기한 위대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위)와 그렇지 않은 조르다노 브루노(아래)



하지만 브루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교황에게 “선고를 받는 나보다 선고를 내리는 당신들의 두려움이 더 클 것ियो.”란 말을 남겼다고 한다. 결국, 가톨릭 교회가 지동설을 부정하고 이단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거짓의 어둠은 진실의 빛을 영원히 감출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 특히 역사관도 그러하다 생각한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역사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서일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사대주의와 식민사관과 같은 왜곡을 청산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갔을 때만이 올바른 대한민국을 수호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